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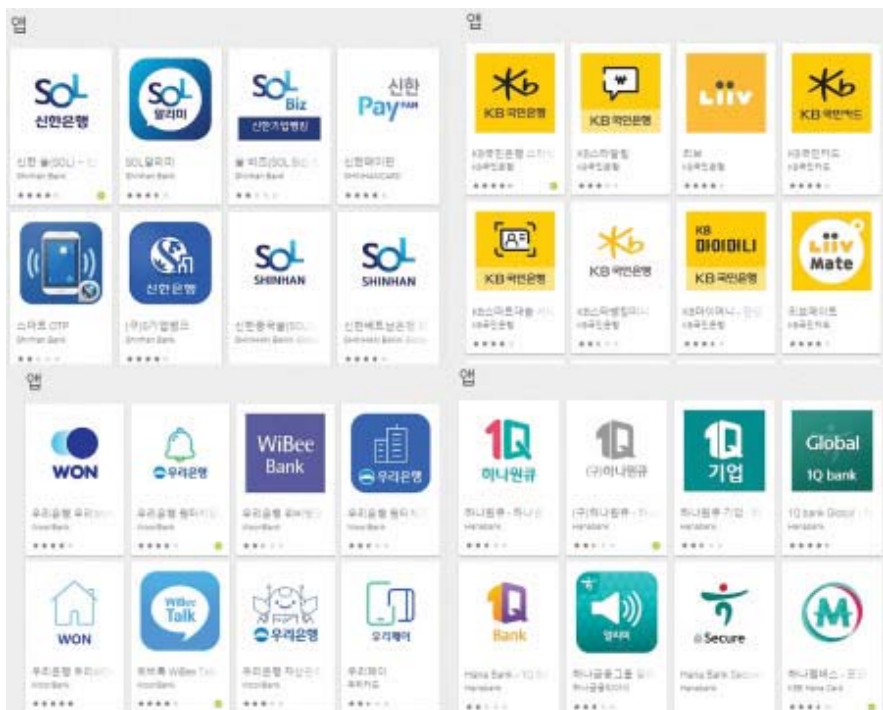
앱 하나로 모든 자산 관리... 은행권 '슈퍼앱' 고도화 심혈

금융권-빅테크 간 경쟁 심화로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경쟁 치열
KB국민, 'KB스타뱅킹' 새단장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정보 더해
신한 '신한솔' 종합자산관리에
내달 배달앱 '뽕겨요' 출시까지

금융권과 빅테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에 비금융서비스를 더한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슈퍼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조성키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은행들의 '슈퍼앱' 전환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슈퍼앱'을 마련하기 위해 앱 고도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업무 외에도 KB증권의 주식매매 서비스와,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서비스, KB손해보험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앱을 새롭게 출시했다. 여기에 부동산·자동차 등 비금융 자산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해 종합자산관리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시중은행 관련 애플리케이션.

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신한솔(SOL)을 통해 은행업무 외에도 증권, 보험, 연금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배달앱 '뽕겨요'를 출시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의 신용평가를 구체화해 대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슈퍼앱' 출시에 심

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앱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은행입장에서 앱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수록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외에도 배달 등 비금융서비스를 더해 앱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제도개선...경영·부수업무 확대

금융당국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필요시 빅테크와 핀테크의 슈퍼앱에 제약을 걸 수도 있었지만 혁신경쟁을 위해선 금융권의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은행업도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금융그룹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르면 영업을 제외한 고객분석과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내부경영관리에 있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단, 고객정보공유 절차가 복잡해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도 불가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에 따라

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외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외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가 불가하다.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M)서비스와 신한은행의 배달앱사업 '뽕겨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통해서만 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산분리 규제도 지목된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토스가 최근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지분을 60% 인수해 택시서비스와 결제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지만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과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론도 내년부터 DSR 규제... 취약층 사금융 전략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규제 앞당겨
다중채무자 취급제한·한도감액 등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관행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핵심논리다. 이때 상환능력의 기준이 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카드론은 통상 중·저신용자들의 실수요 대출로 취급된 만큼 DSR 적용 역

시 내년 7월까지 유예됐으나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로 카드론 총량이 급증하면서 규제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카드론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카드론 동반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 등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라 이용빈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 고령차주 등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먼저 다중채무자를 겨냥, 카드론 고삐를 조이기로 했지만 기준의 획일화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주식·부동산 투기용 수요가 아닌 생계형 실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250만5000만명으로 이중 다중채무자는 절반을 넘는 14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타격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창구를 찾아 나선 차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4.4%로 집계됐다.

올해 MZ세대의 카드 대출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며 이목이 쏠렸으나 50~60대 이상 차주들의 카드론 이용도 만만치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의 만 50세 이상 차주의 카드론 잔액은 1분기 기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2000억원) 대비 14.2% 증가

했다.

중년·고령차주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생계가 어려운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출절벽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다만 지난달 기준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4조887억원으로 8월 대비 5339억원 줄어듬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내년 카드론 DSR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남은 기간 대출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카드론 DSR 규제 강화를 비롯해 카드사의 연간 대출 증가율 한도가 4%로 낮아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

농협금융지주 임직원 ESG 아이디어 실제 업무에 활용 추진

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임직원 ESG 아이디어 공모전 'ESG 뇌쓰자'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뇌쓰자 공모전은 전사적인 ESG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사업전략부(신사업모델·탄소중립표어) ▲대고객부(금융상품·금융서비스) ▲조직문화부(임직원 ESG 캠페인·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3대 부문 6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난 한달 간 총 23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손희장은 "ESG 추진 공감대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로도 이어진 것"이라며 "ESG는 경영 그 자체로 농협금융의 조직 문화에 완전히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장은 또 "수상작 뿐만 아니라 응모작 모두를 연관 부서에 이관해 실제 사업추진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업전략부 1위 선정작은 '범 농협 유희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구조도를 제시해 추진 효과를 가시화했다. 범 농협 시너지 창출과 지역 농민과의 투자수의 공유 효과도 반영돼 최종 선정됐다.

대고객부 1위 선정작은 ESG 금융상품인 'NH 올바른 지구(G9) 카드·적금'으로 환경을 위한 9가지 혜택 등 세부적인 구조 설계로 상품화 가능성이 높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효과까지 고려해 선정됐다.

/권소원 기자

하나은행,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지원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서비스'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 지원을 받자한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

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

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